

박물관 형식으로 집대성한 우리 민족의 생활사

사계절,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 1차분 펴내

역사학의 조류가 왕조사나 정치사에서 생활사로 바뀐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생활사를 집대성하려는 대형기획물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사계절이 기획한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가 바로 그것. 특히 이 시리즈는 박물관 형식을 빌려 책의 평면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각적 효과와 역사이해의 폭을 극대화하고 있어 화제다.



사계절/A4/100면 내외/각 15,000원

미국에 스미소니언박물관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한국생활사박물관'이 있다. 자연사박물관·역사기술박물관·항공우주박물관 등으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스미소니언박물관 가운데 '한국생활사박물관'의 맞상대는 역사기술박물관이다. 1964년 개관한 역사기술박물관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방·실내장식·가재도구·건물들에 관한 것을 전시하고 있다.

책 속에 차린 생활사 박물관

이에 비하면 '한국생활사박물관'의 역사는 일천하다. 이 박물관은 2000년 7월 5일 문을 열었다. 게다가 '선사생활관'과 '고조선생활관'만 완성된 미완의 박물관이다. 그래도 이쯤에서 어린이는 부모에게 그곳에 함께 가자고 조를 터이고, 부모는 아이를 데려가 볼 작심을 할 법도 하다. 그런데 '한국생활사박물관'을 보기 위해서는 서점에 가야 한다.

사계절 출판사의 야심작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는 책 속에 차린 박물관이다. 박물관 형식을 차용해 책의 평면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각적 효과와 역사 이해의 폭을 극대화했다. <한국생활사박물관>은 야외전시장과 5개의 실내전시실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야외전시장은 각 권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미지를 통해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맛보기로 보여준다.

두개의 파트로 나뉜 실내전시실의 첫번째 파트에는 주전시실과 특별전시실이 자리잡았다. 주전시실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활상을 이야기·사진·그림 등을 통해 되살렸는데, 제1권 <선사생활관>은 주전시실을 둘로 갈라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배치했다. 특별전시실에서는 그 당시의 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유물이나 사실을 색다른 각도에서 부각시켰다.

두번째 파트에는 가상체험실·특강실·국제실이 마련돼 있다. 가상체험실은 유적 발굴 과정, 문화 유산의 제작 과정, 선인들의 생활 모습 등을 가상체험하는 공간이다. 특강실에서는 역사적·학문적 쟁점의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며, 국제실은 그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다른 나라의 그것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위상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함께 호흡하는 책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한국생활사 총서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을 역사 교양서의 형식을 빌려 전달한 경우는 꽤 있었고, 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앞서의 작업들은 특정 시대에 치우치고 흥미 본위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반면,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는 우리 역사 전체에 초점을 맞췄다. 생활사의 복원을 바탕으로 역사의 재구성도를 시도하고 있다. 역사학은 물론, 고고학·민속학·인류학 등 관련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증에 만전을 기했다. <선사생활관>은 한양대 배기동 교수가, <고조선생활관>은 서울대 노태돈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이 시리즈는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책을 지향한다. 전국의 박물관과 민속전시관에서 지원받은 유물의 화상자료를 지면에 고스란히 옮겨 놨다. 각 권마다 40여점의 일러스트와 100여장의 사진을 통해 해당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했다.

그러면 완성된 전시관을 둘러보자. <선사생활관>의 야외전시장은 서울의 현재 모습을 찍은 사진과 4만년전 삶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앞뒤로 배치해 과거와 현재의 극적인 대비를 꾀했다. 이런 편집체제는 생활사의 역사는 면면하고, 그 맥은 오늘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의 발간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주전시실로 들어서면 구석기시대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 방에는 일반

적인 시대 구분에 따라 기원전 250만년에서 1만년 사이의 생활상을 담았다. '모루때기' '직접때기' '간접때기' '눌러때기' 같은 뎀석기의 다양한 제작법을 설명했고, 대표적 뎀석기의 실물과 용도를 소개했다. 이어지는 신석기실에서는 기원전 1만년에서 1천년 사이의 생활상을 재현했고, 특별전시실에는 울산 대곡리 바위그림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옮겨 다른 지역의 바위그림과 비교했다.

가상체험실에서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유적 발굴 실례를 통해 선사시대 유적지 탐사와 발굴의 실례를 보여 준다. 《선사생활관》 특강의 주제는 모권사회의 존재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돌로 시대를 구분하는 까닭으로 정했다. 국제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현생인류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사를 도표와 사진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고조선생활관》은 고조선이라는 말에 담긴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허문다. 신화의 베일을 벗겨 내고 우리 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의 생활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1호 고조선 박사인 송호정씨가 책임 집필을 맡아 고조선 시대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주전시실과 특별전시실에서는 청동기·민무늬 토기·고인돌·돌돌림 무덤·목곽분 같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조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가상체험실에서는 기원전 108년에 발발해 고조선의 멸망을 촉발한 중국 한나라와의 전쟁을 극화 형식으로 재현했다.

아울러 전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했다.

단행본출판사의 야심찬 기획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는 대형기획이다. 선사시대에서 현재까지 생활사를 15권에 담을 계획이다. 《고구려생활관》과 《백제생활관》은 올해 말 출간되고, 《신라생활관》과 《발해생활관》은 내년 5월에 나올 예정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의 생활상은 여러 권에 담긴다. 7권과 8권은 《고려생활관》(2001년 10월 출간예정)의 차지가 되고, 9권에서 12권까지는 《조선생활관》(2002년 6월 출간예정)이 들어선다. 이 시리즈는 《20세기생활관》을 끝으로 2002년 말 완간된다.

발간 비용도 만만찮다. 권당 제작비는 1억 6천만원을 헤아린다. 사계절은 각계의 전문가와 전문인력을 망라한 편찬위원회도 꾸렸다. 편찬위원의 숫자는 40여명에 이른다. 또한 출판사 건물 한켠에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집팀의 사무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

강남실 사계절 대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막바로 제3권 제작에 돌입하느라 첫 성과물의 기쁨을 느낄 겨를이 없다. 어떤 상태로 완간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때 그때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이미 만든 책도 부족한 면은 끊임 없이 보완하겠다"고 소감 겸 포부를 밝혔다. - 최성일 기자

학계의 연구성과와 출판사의 역량을 집약했다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 편집인 강응천씨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의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강응천씨(37)를 만나 이 시리즈의 기획·편집·제작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다.

— 첫 수확을 축하한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얼떨떨하다. 이런 책이 나올 때가 됐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없지 않았다. '더 잘 만들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일정한 수준은 채웠다고 자부한다.

—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영화로 치면 감독인 셈인데.

"분에 넘치는 자리다. 그래서 편찬위원장이라는 직함 쓰는 걸 피했다. 편집인으로 불러 달라. 구성 회의에서 수렴된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내게 있다."

— 어떤 점에 특히 유념했나?

"이 시리즈는 인터넷 시대에 책이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작업이다. 인터넷을 능가하는 영상 연출에 주안점을 뒀다. 박물관의 공간성을 살려 책을 통해 직접 박물관을 관람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박물관 형식이 책을 읽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시실 배치에 주의를 기울였다. 책이 지닌

책 나름의 논리와 박물관 형식의 조화를 꾀했다."

— 왜 생활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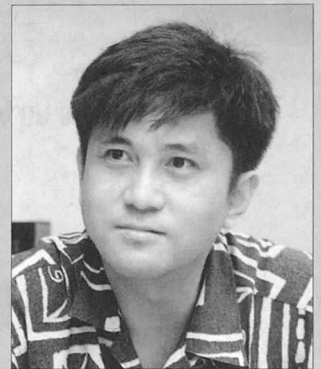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과 추상적인 일만 역사로 기록했다. 하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생활사가 어필한다. 전통과 단절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조상들의 구체적인 생활상도 삶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생활사를 통해서 역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어려웠던 점을 든다면.

"역사학계에서는 생활사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연구성과는 미진한 형편이다. 전통적으로 지배자와 왕조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온 국사학계는 특히 그렇다. 그나마 생활사 연구를 해온 민속학은 시간개념이 없어 큰 도움을 얻지 못했다.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탓에 편집·제작 과정이 무척 어려웠다."

— 미리 이 시리즈의 의의를 평가한다면.

"세가지 정도의 의의가 있다. 첫째, 학계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효율적으로 집약한 결과물이다. 둘째, 자본과 규모는 적은 편이나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출판사의 역량을 집중했다. 셋째, 다큐멘터리 일러스트레이션의 새 장을 열었다."



강응천씨

— 출간에 얽힌 에피소드를 들려 달라.

"《역사신문》을 내고서 신문을 정기구독하겠다는 문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생활사박물관의 장소와 관람방법을 묻는 전화가 왔다. 편집진과 디자이너 사이에 생활사박물관 관계자에게는 '생활이 없다'는 말이 오갈 정도로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제1권 《선사생활관》의 집필을 맡기도 한 강응천씨는 전문기획자다.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와 출판기획 '국제문화'의 기획위원을 지냈다. 《문명 속으로 뛰어들어 그리스 신들》(사계절)으로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저술가이기도 하다. - 최성일 기자